기고 FEATURE

건축사 모두의 참여만이 한국건축산업대전의 발전과 우리의 위상을 올릴 수 있다

All Participations of Architects can develop KAFF and lift up our phases

올해로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가 4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1, 2, 3회를 거치며 날로 발전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그리 성공했다는 말을 하기엔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필자 스스로도 1, 2회 때의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여하여 전시를 관람한 기억은 있으나 그 후 관심을 갖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게 된다.

봄, 가을로 치루어지는 많은 건축 관련 전시회를 보며 사실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시회가 없었던 게 사실이고 모두가 일반인에게 자재를 홍보 하는게 전부였고, 전시회의 근본 본질을 잊은 체 과포장된 전시기획으로 관람객 유치에 열을 올린 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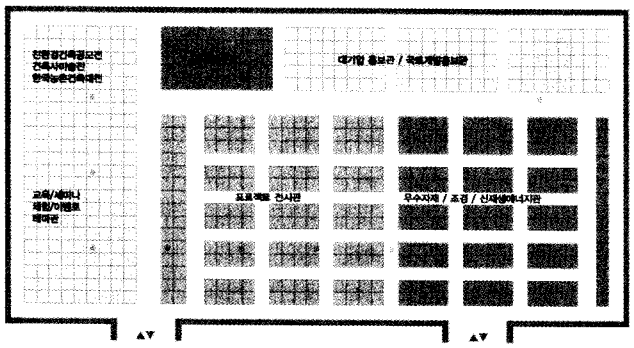
각종 TV 방송 매체를 통해 어마 어마한 홍보공세에 치우쳤고 진정한 전시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이때 전문가 그룹인 대한건축사협회의 주도로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준비하게 되고 기획한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볼 수 있다.

한국건축산업대전 2009는 우리의 잔치이다. 기획하고, 운영하고, 참가업체를 섭외하고 하는 것들이 몇몇 준비위원회에서 노고를 하겠지만 건축사 잔치에 건축사가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의미는 없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건축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시간을 만들어 참가 한다던지 아니면 멀리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참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듯하나 모든 행사가 그러하겠지만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행사를 성공하게 하는데 커다란 비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건축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모임이나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 중 모임의 최고 책임자나 아니면 도우미로써 활동을 하고 행사 등을 주최하겠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준비를 하는 과정 보다는 준비한 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참여도가 적으면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곤 했을 것이다.

매년 협회에서 우리 건축사의 미래 지향과 건축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건축산업대전을 준비하는 만큼 집행부 및 준비위원들의 노고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건축사 모두를 위해서



전시장 배치도

건축사 모두의 참가 관람을 적극 독려하고 싶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자재선정 및 개념 설정은 설계자가 갖는 고유권한이고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설계자의 경험으로 자재를 추천하는 기회로 건축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수준 있는 전시가 아닐 수 없다.

필자 자신도 관심 없던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우연한 기회로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다보니 이렇게 기획의도가 좋고 건축사라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시야말로 진정한 전시의 개념을 잘 살린 전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설계를 하다보면 많은 건축자재 업체로부터 방문을 받는다. 건축설계시 자재 사용을 의뢰 받기도 하나 설계의 목적은 건물주, 사용자를 위한 건물을 최적의 가격으로 최고의 건축물을 추구하다보니 설계라는 경험과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로 건물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재를 알고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다. 정보를 많이 아는 설계자만이 건물주에게 좋은 설계를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석재, 벽돌, 나무만 아는 설계자는 그것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건축자재를 볼 때 전통적인 건축 자재 등을 고집할게 아니라 용도 및 기술적인 사항을 충족할 새로운 제품 등에 대해 귀를 기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나, 세상은 우리 건축인이 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전문집단도 많이 있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돌렸을때 그 세상은 참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재미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 전시회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전시기획을 준비하던 필자로써는 내가 가장 많이 만나고 상담하고 설계를 한 물류시설(창고)을 떠올릴 수 있었다.

현 정부에서 물류정책은 새로운 정책의 화두로 끄집어내고 있고 물류를 운영하는 전문 그룹들을 만나면 매우 고무된 표정으로 새로운 세상에 계속해서 도전장을 던진다.

물류시설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설계에 참여하여 그 집단에 동참하는 것은 건축설계자로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건축인 끼리 모여서는 영업적인 수주에 한계가 있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협의하고 조언해줌으로서 서로의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프로젝트의 수주를 완성하는 것 같다.

인류가 태어나면서 의식주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다. 의료업계의 전문가 집단을 만나 건축설계자로의 의료업계 관련 건축물에 대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건축설계 수주를 보상 받기도 하고 먹거리 문화와 동참하여 레스토랑 운영 등을 조언하다 보면 멋진 식당 건물이 탄생 하듯이 건축설계 분야에서도 학교, 병원, 사무소, 주택, 공장, 창고 등 여러 용도와의 관계자가 어우러지는 영업 전략이 힘든 건축설계 시장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필자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물류인들과 물류시설에서 가진 문제점 및 해결책을 공유하면서 서로 친분 관계를 갖게 됐고, 지금은 전문 물류시설 설계사무소로 물류협회의 설계 자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전시회 제목만큼 산업이라는 용어 뜻처럼 경제를 생산하기 위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 포괄적 의미로 해석해보며 세상이 존재 하는 한 그 모든 분야도 비와 햇볕과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건축물로서 해석되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서 한국건축산업대전 4회 전시회에는 유통물류관을 신설하여 물류를 운영하는 건물주는 물류 창고를 짓기 위해 필요한 건축 외장재, 바닥재, 지붕재, 단열, 물류시설 등을 소개하게 하고 건물주는 화주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만듦으로써 등한시 되어 왔던 물류 창고가 하나의 산업시설로 인정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물류협회 및 물류정부관계자끼리 따로 개최되는 한국물류산업전시를 보면서 건축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물류파트가 있음을 공감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물류시설 한 파트를 포용하는 건축산업대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아무쪼록 2009년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우리 건축인이 만든 전문전시 기획이고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만큼 건축사 모두의 참여가 산업대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고 전시회의 성공으로 우리의 위상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기대해 본다.

한국건축산업대전 URL : www kaff.biz